

광주·전남 탈북민 절반 이상 임시·일용직

월평균 소득 143만원...일반 국민 보다 80만원 적고 주 3.7시간 더 일해

남북하나재단 1144명 조사

10명중 2명 "차별·무시 겪어"

청소년 절반 "탈북 사실 숨겨"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2명 가량은 남한에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좌절을 막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선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따뜻한 포용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만 15세 이상 광주·전남 북한이탈주민 1144명을 대상으로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탈북민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이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에 거주하면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828명 중 19.2%인 224명이 '있다'고 답했다.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51.3%(598명)였다.

'차별과 무시를 당한' 이유는 '말투·생활방식·태도 등 문화적 차이 때문'(60.9%), '북한 이탈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34%), '남한 사람에 비해 능력 부족'(19.9%), '낮은 경제적 수준'(13.3%), '북한의 도발'(6.0%) 등의 순이었다.

고용 시장에서도 탈북민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용직'에 취업한 탈북자 비율은 46.9%로 낮지 않았지만 직종으로 보면 사무직은 5.9%에 불과했다.

탈북민들의 월평균 소득은 143만원으로 일반 국민 223만원에 비해 80만원 적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7.5시간으로 일반 국민 44.1시간보다 3.4시간 더 많이 일했다.

지역사회의 편견에 시달리는 것은 성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을 가급적 밝히지 않겠다고 답한 탈북청소년은 전체의 47.9%에 달했다. 또 절대 밝히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32%로 나타났다.

북한 출신임을 밝히지 않으려는 이유는 '밝힐 필요가 없어서'(43.6%), '차별대우 받을까봐'(28.2%),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호기심을 가질까봐'(15.4%), '부모님이 밝히지 말라고 해서'(5.1%) 등이었다.

이 같이 탈북민에 대한 차별의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는 남북 분단의 이질감과 선입견 등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지역민들의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탈북민을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으로 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또 탈북자 간접사건과 잇단 재입북 등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지역사회의 탈북자에 대한 불신이 커진 점도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들 역시 우리의

이웃이라는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북하나재단 관계자는 "이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휴유증 등이 크다는 점을 지역민들이 이해하고 감싸준다면 이들도 조기 정착에 더욱 힘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광주 위해 뛰어달라" 10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에 앞서 윤장현 광주시장이 김동철 국민의당 광주시장위원장을 비롯한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광주경제를 위해 뛰어달라며 운동화를 선물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자동차·에너지·문화...성장동력 확보 힘 모으자

광주시, 국회의원 당선자와 정책 간담회

광주시와 광주지역 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첫 만남을 갖고 광주발전을 위한 '광주희망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5시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현안과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관련기사 2면>

이날 간담회에는 조영표 광주시의회의장과 5개 자치구청장도 참석했다. 당선인 모두가 국민의당 소속인 반면

김성환 동구청장을 제외한 윤 시장과 4개 자치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날 간담회는 민선 6기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성과, 자동차·에너지·문화 등 3대 성장 동력산업 소개와 주요 현안사업, 내년도 국비지원 요청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삼성전자 전자부품사업 유치 ▲남구 도시첨단 지방산단 조성 ▲시내면세점 유치 ▲광주호 주변 생태타운 조성 ▲네

너지밸리조성 특별법 제정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전일빌딩 활용 방안 등 16개 현안 사업에 대해 협력을 요청했다.

신규사업 89건을 포함해 모두 261건, 2조4440억원 규모의 내년 국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건의했다.

이에 당선인들은 시정 주요 현안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 후에는 당선인들과 광주시가 적극 협력해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담은 '광주 희망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국가보훈처 '임 행진곡' 꼽수

5·18 기념식 식순 결정 미적미적...논란 피하기
"16일 발표"...5·18 행사위 "결정 끝까지 주시"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돼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국가보훈처가 제창 여부를 포함한 기념식 식순 발표를 미루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보훈처의 꼼수"라고 지적하면서도 "정부기념식에 맞서 별도의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입장이다. <관련기사 7면>

국가보훈처는 5·18 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 식순은 행사 2~3일 전쯤 결정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기념식 식순도 통상 행사 2~3일 전 확정, 발표된다"고 설명했다.

기념식 식순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참석자들이 제창하게 될 지, 합창단만 부르게 될 것인지가 식순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보훈처가 기념식을 불과 이틀여 남겨두고 식순을 발표한다는 입장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돌려싸고 수년째 되풀이되는 논란을 가능하면 늦추고 피하려는 꼼수"로 해석하고 있다.

"다른 보훈 기념식과 동일하게 식순이 확정된다"는 보훈처의 해명에도 "기념식 식순이 통상 1주일 여 전에 확정, 관계기관에 통보된 것과 달리 일주일 통보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보훈처는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조원씨앤아

이라는 리서치회사가 지난 4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하는냐는 물음에 찬성 37.9%, 반대 32.4%의 답변이 나왔다"면서 "2011년 리얼미터가 똑같은 질문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찬성 의견은 줄어든 반면, 반대편 입장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에서 다양한 참석자들이 모이는 정부 기념식의 특성상 국민통합 차원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나는 부분들도 고려해야 하는 보훈처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부연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지난 2009년부터 2년 동안 기념식에서 합창단의 합창형태로 불렀고 공식 식순에서도 빠져 식전공연으로 대체됐다. 5·18 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기념곡 지정 및 제창 요구가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기념식은 최근 3년간 '반쪽행사'로 전락했다.

5·18 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행사 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예년과 달리 별도의 기념식을 따로 마련하는 방안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면서도 "보훈처의 결정을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위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원 당선자 등 정치권 인사와 광주시, 시의회, 시교육청 등과 함께 11일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남매가 노부 살해 '어비날 충격' ▶6면

이제는 문화 시민-세종아카데미 ▶18면

제33회 최은희 여기자상 시상식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2016 내가슴愛약속

내가슴의 건강을 지키는 아리따운 실천

광주 상무시민공원 6월 12일(일)

종 목 10km / 5km
참가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기념품 르까프 기능성 티셔츠, 양말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688 9744
참가신청 선착순 접수 <http://me2.do/xRtD1Luj>
검색창에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을 입력하세요.

후원 보건복지부, 한국유방암학회 협찬 헤라, 아리따움, 르까프

AMORE PACIFIC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